

공동발표문 비공식 번역문

제20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성명 (2020년 9월 18일, 화상회의)

1.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이하 한중일)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홍남기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의장으로 제20차
한중일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개최함. COVID-19 팬데믹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동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2. 우리는 최근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전망, 전례없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응, ASEAN+3 금융협력 진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코로나19의 확산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위축,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 글로벌 가치사슬(GVC)
손상 등 역내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 이에 우리는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경계하면서, 모든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며, 개방적
이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투자체제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한중일
3국은 역내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 및 3국 상호간의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할 할 것을 약속함.
3. 올해 CMIM 협정문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CMIM의 작동성 강화에
큰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함. 우리는 1차 정기점검(Periodic Review) 성과를
반영하여 CMIM 협정문 개정안 및 운영지침(OG)이 2020년 6월 23일에
발효되고, 또한, 지난해 10차 (CMIM) 시험운영(Test Run)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을 환영함. 우리는 또한 2019년 12월 중국 샤먼에서 ASEAN+3
차관들이 이끌어낸 일괄합의(Package Agreement)를 지지함. 이러한 측면에서,
일괄합의를 반영하기 위한 CMIM 협정문 임시검토(ad-hoc review)의 완료를
기대함.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의 필수적인 요소인 CMIM이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팬데믹을 포함한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역내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함.
4. 우리는 역내 거시 경제 감시를 제고하고, CMIM 이행을 지원하며,
ASEAN+3 국가들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AMRO의 지속적인
노력을 치하함. 특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각국의 거시 정책 여력에 대한 AMRO의 시의적절한 분석을 높이
평가함. 우리는 AMRO의 ‘새로운 중장기이행계획(MTIP): 2020-2024’이
2019년 12월 중국 샤먼에서 승인된 것을 환영하며, AMRO가 역내 “신뢰
받는 가족 주치의(trusted family doctor)”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거시
경제 감시 및 조직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강력히 지원할 것을
재확인함

5. 우리는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중기 로드맵 2019-2022’에 따라 ABMI가 지속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지지함. 우리는 인프라투자파트너십(IIP) 연구를 포함, 인프라 금융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지속적인 노력을 칭찬함. 우리는 역내채권시장포럼(ABMF)의 역내통화표시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인정하고, 역내통화표시 녹색채권(Green Bond) 촉진 및 아시안본드온라인(ABO)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이 발족됨을 환영함. 우리는 각기 다른 ABMI TF 간 협업 노력, 특히 역내통화표시 채권시장 관련 ABO의 ABMF 및 CGIF와의 정보 공유와 국경간 담보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지급결제 인프라포럼(CSIF)과 아시아적격담보포럼(APCF)간의 협업 노력을 칭찬함.
6. 우리는 역내 금융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합의한 “ASEAN+3 금융협력 전략방향”에 따른 5개의 스터디그룹 결성 및 각 스터디그룹이 마련한 연구보고서를 지지함. 우리는 동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우리는 역내 금융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ASEAN+3 회원국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함.
7. 우리는 SEADRIF의 첫번째 성과물로 라오스,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 재해 위험 보험풀(the catastrophe risk insurance pool) 운영 개시 관련 성과 및 공공자산 재정보호 프로그램(Public Asset Financial Protection Program)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 개시를 환영함.
8. 우리는 2020년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의장으로서 일본과 베트남이 보여준 지도력에 감사함. 또한 우리는 내년에 열릴 제24차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의장을 맡게 될 한국과 브루나이를 지원하기로 함.
9. 우리는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한중일 3국간 정책대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이 될 것을 믿으며, 2021년에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다시 만나기로 함.